

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문해력(文解力)과 문예*

최지녀**

- I. 서론
- II. 애정전기 여주인공의 문예
- III. 여성 인물의 문예와 변모 양상
- IV. 결론

<국문초록>

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문예’를 통해 자신의 정서와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연인과의 정신적 유대를 형성하기에 문장에 통달하고 시작(詩作)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남성에 비해 학문을 연마하고 문예적인 훈련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던 전근대의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설정은 일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전기소설에서는 여성이 문해력과 문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 인물과 그 주변 환경을 정교하게 설정하여 소설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주인공의 신분은 사족과 중하층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거나 궁녀 혹은 기녀로서 조선시대에 문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여성 집단에 속한다.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집, 서적, 기물 및 여성 인물의 이력과 처지도 이들이 문예적 역량을 갖춘 인물임을 강조하고 현실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전기소설 속의 문예 작품의 서사적 역할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약화되는 바 『심생전』, 『절화기담』, 『포의교집』 등에 이르면 여성 인물의 신분이 중하층에 가까워지고 이들의 문해력과 문예는 장르의 전통적인 문법을 벗어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홍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과 강의전담교수

나 계층적 다양성에 따른 언어 현실을 적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핵심어: 전기소설, 애정전기, 문해력, 문예

1. 서론

전기소설, 특히 애정전기의 주인공은 흔히 ‘문예적 인간’으로 일컬어진다. 이는 남녀 주인공이 강한 ‘문예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 혹은 정체성을 드러내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연인과의 정신적 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문장에 통달하고 시작(詩作)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그려진다. 『운영전』(雲英傳)의 김진사, 이른 시기의 전기소설인 『최치원』(崔致遠)의 주인공이자 실존했던 문호인 최치원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여주인공 역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성과 대등한 수준의 문예적 취향과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두 사람의 문예적 수준이 높을수록, 또 그 취향이 비슷할수록 서로 교감하여 특별한 사랑을 나누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여성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문예적인 훈련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던 전근대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편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기소설을 ‘사계층 문인지식인의 꿈과 원망(願望)을 표현하는 장르’²⁾라고 칭할 때 문예적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여성 또한 남성 작가의 욕망이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형상화가 과도할 경우 여성 인물은 남성의 욕망에 맞추어 거칠게 재단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³⁾ 많은 경우 전기소설의 여성 인물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여성의 문예적 역량을 드러내고 ‘사랑의 아름다움과 비극성’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박희병,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52면 참조.

2) 윤재민,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16면.

3)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49면 참조.

이에 본고에서는 ‘문예적 인간’으로서의 여주인공에 초점을 두고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소설적 설정으로서의 개연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기소설 가운데서도 여성의 문예적 역량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애정전기 및 애정전기의 전통을 계승한 후대의 주요한 작품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주생전』(周生傳), 『운영전』, 『최척전』(崔陟傳), 『심생전』(沈生傳), 『절화기담』(折花奇談), 『포의교집』(布衣交集) 등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작품에 따라 남주인공 및 남녀주인공의 상호 관계도 고려할 것이다.⁴⁾ 이를 바탕으로 문면에 드러나거나 암시되는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의 문해력(文解力)⁵⁾과 문예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변모 양상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4) 선행 연구 가운데 전기소설에서의 삽입 시문 및 전고(典故)의 기능을 논한 연구와 여성 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한 연구가 본고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작품에 삽입된 시사(詩詞) 및 전고의 서사적 기능이나 변모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는 박종우, 『전기소설 삽입시의 기능과 성격』,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정환국,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감』,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의 제4장 등을 들 수 있고, 각편의 삽입시 및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하성란, 『포의교집』의 삽입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정길수, 『포의교집』의 희작(戲作) 성향 -여주인공 초옥을 보는 작자의 시선』, 『고소설연구』 45, 2018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전기소설 각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작품론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논의의 일부에서 시, 사, 편지 등 여주인공이 쓴 글의 내용을 다룬 경우도 적지 않은바 본고에서는 여성 인물의 문해력과 문예 및 글쓰기에 초점을 두되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작품 해석을 적절히 참고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5) 문식성(文識性)으로 쓰기도 하는 ‘문해력’은 ‘literacy’의 번역어이다. 문해력은 특정 문자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가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기에 적절한 단어로서, 본고에서는 높은 수준의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특히 한시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과는 구분되는, 기본적인 이면서도 함리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해력과 문예는 판독 능력-이해력-감식안-인용 및 활용-창작-작품의 생산 등의 계열에서 따로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문해력은 ‘읽고 쓰는 능력’에서 출발하지만 미디어 또는 디지털이라는 단어 혹은 현상과 결합하여 그 의미가 무한 확장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현시점에서의 문해력의 다채로운 면모에 대해서는 조병영,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참조.

II. 애정전기 여주인공의 문예

논의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애정전기 여주인공들의 신분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신분을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한문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문예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소설 내외적 개연성이 확보되었는가에 관심을 두기 위함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여주인공들은 한시를 짓는 데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으며, 글솜씨가 좋기로 이름난 남주인공과 능숙하게 시를 수창한다.

(1) 양생 역시 글을 잘 짓는 사람이었으므로, 여인의 시 짓는 법이 맑고 고상하며 시의 음절이 또랑또랑한 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자리 앞으로 나오더니 붓을 휘둘러 옛날풍으로 지은 장단편 한 편을 써서 화답하였다.⁶⁾

(2) 배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서방님은 이런 재주를 가지셨으니 오랫동안 남의 아래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나요?” (……) “서방님께서선 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 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⁷⁾

(1)은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이 여인이 지은 칠언시를 보고 감탄하는 대목이다. 여인은 자신도 ‘문자를 조금 안다’[余亦粗知字畫]며 겸손하게 말하고 시를 짓는데, 실은 기본적인 문해력 이상의, 높은 수준의 시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양생 또한 이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으며, 곧바로 화답시를 지을 만큼 시작에 능숙하다. 여성이 시에 대한 높은 감식안을 가지고 있어 남성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다는 설정도 흔하다. (2)는 『주생전』의 배도가 주생의 시를 보고 놀라는 대목으로, 배도가 시의 고하

6) 박희병·정길수 편역, 『만복사저포기』,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174면. 이하 『만복사저포기』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한다.

7) 박희병·정길수 편역, 『주생전』,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26면. 이하 『주생전』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한다.

(高下)를 정밀하게 판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견 보잘것없이 보이는 남성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시에 대한 감식안, 곧 문예적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애정전기의 여성들은 대부분 한시를 읽고 감상하며 창작하는데 능숙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문학사에서 여성 한시 작가라 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16세기 이후이다.⁸⁾ 16세기 전반의 인물인 황진이를 비롯하여 이매창(李梅窓, 1513~1550),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이옥봉(李玉峰) 등에 이르면 남성 문인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여성작 한시들이 생산된다. 이들의 신분은 기녀, 사족(士族), 서녀이자 사족의 소실 등이며,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여성 한시 작가들의 신분 역시 이 범주를 크게 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애정전기 속 여주인공의 신분 또한 이와 흡사하다.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의 신분은 사족 여성과 궁녀를 포함한 중하층 여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상기한 작품 가운데 「만복사저포기」의 여인, 「이생규장전」의 최씨, 「하생기우전」의 여인, 「주생전」의 선화, 「최척전」의 옥영은 모두 명문가 출신이다.⁹⁾ 반면 「주생전」의 배도, 「운영전」의 운영, 「영영전」의 영영, 「심생전」의 여인, 「절화기담」의 순매, 「포의교집」의 초옥 등은 중하층의 신분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도는 기녀, 운영과 영영은 궁녀, 「심생전」의 주인공은 부유한 중인의 딸, 순매는 시비(侍婢), 초옥은 궁녀 출신의 하층민이다.

이와 같이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은 조선시대에 문해력과 문예 능력을 갖춘 여성 집단을 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 작가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정전기가 ‘영혼의 짝’이라 할 수 있는 상대와의 특별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준 높은 한시를 창작할 수 있는 여성이 비록 소수이지만 존재했고 이러한 여성의 형상이 작품에 반영되

8)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 고전여성문학의 세계: 한시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9~16면 참조.

9) 창작 시기와 배경이 상이하여 다른 작품과 완전히 동렬에 놓고 언급하기 어려우나 「최척전」에 등장하는 팔랑과 구랑 역시 신분은 그리 높지 않으나 매우 부유한 집안의 딸로 설정되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현의 관리가 되지 못하고 지방의 토호가 되어 돈을 적는 銅山처럼 부를 누렸고 갑부인 金谷처럼 사치를 부렸습니니다”(이동근 편역, 『최척전』, 『수이전』, 지식은 만드느시식, 2011, 22면)

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애정전기의 작자는 작품 내부에도 여성의 문예적 역량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관습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족(士族) 여성의 경우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을 남성과 대등한 문예적 역량을 가진 것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허난설헌과 같이 유복한 명문가의 딸로 설정하는 것이 손쉽고 적절하였을 것이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주생전」의 여주인공은 모두 사족이면서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들의 창작 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데, 이 시기는 허난설헌의 동생 허균이 『학산초담』(鶴山樵談, 1593)과 『국조시산』(國朝詩刪, 1607), 『난설헌집』(蘭雪軒集, 1608)을 통해 허난설헌의 시를 소개한 때와 겹치거나 그것보다 이른다.¹⁰⁾ 따라서 초기 애정전기에 나타나는 탁월한 여성 시인의 형상은 허난설헌에 이르러 개화한 조선 전기 이전 사족 여성들의 시 작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6세기 이전의 여성작 한시는 희소하며, 무신 이각(李恪, 1374~1446)의 부인이 쓴 「송부출새」(送夫出塞)가 조선 여성의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서거정의 『동인시화』(東人詩話, 1475)에 소개된 정씨, 미암 유희춘의 아내 송덕봉(宋德峰, 1521~1578) 등이 쓴 한시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작품의 수는 많지 않지만 한문 문해력을 지닌 여성 혹은 한시를 창작한 경험이 있는 사족 여성이 드물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불교 신자였던 고려시대 여성의 일부는 불경을 읽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었고,¹¹⁾ 조선시대에도 한시의 창작에까지 이르지 않는더라도 기본적인 한문 문해력을 지닌 여성들은 상당히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10) 허난설헌의 시 자료 현황은 임미정, 「허난설헌 시 자료의 재검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1에 자세하다.

11)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의 모친은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 『금강만야경』(金剛般若經)과 『화엄경』(華嚴經) 등을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이승인, 「선대부인행장」(先대夫人行狀)(『도은집』(陶隱集) 권5)에 “雞初鳴, 盥櫛而坐, 誦『金剛般若經』, 『華嚴』行願品爲日程焉”라는 내용이 보인다. 고려시대 여성의 독경(讀經)과 송경(誦經)에 대해서는 김영미, 「고려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수행」, 『사학연구』 86호, 한국사학회, 2007, 12~15면 참조.

관련하여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걸친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 (1) 유석의 막내딸은 글을 약간 알아서 최항(崔沆)에게 시를 지어 부친의 유업을 빌었더니 최항이 그를 위로하며 곡식과 비단을 보내주었다.¹²⁾

- (2) 김태현은 10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노력하여 학업을 빨리 이루었다. 풍모가 단아하고 이목구비가 그린 듯하였다. 일찍이 벗들과 함께 선배의 집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선배가 그를 몹시 아껴 자주 집으로 데려가 대접하였다. 그 집에는 얼마 전에 과부가 된 딸이 있었는데 시를 조금 지을 줄 알았다. 어느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창틈으로 그에게 던졌다. ‘말탄 이는 뉘집 선비이신지 / 석달이나 그 이름 몰랐더니 / 이제 알아 김태현이라 하네 / 가는 눈 긴 눈썹이 남몰래 좋아라’ 김태현은 그때부터 발길을 끊었다.¹³⁾

- (3)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학문이 없어서 훌륭한 자질이 있어도 실 갖는 일을 하는 데 그칠 뿐으로, 이 때문에 여성의 시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족 정씨는 형제들이 학업을 닦을 때 그 곁에 몰래 가 배웠는데 시를 매우 잘 썼다. 두견화가 만발한 어느날 남편이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자 정씨는 바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간밤에 봄바람이 깊은 방에 불어와 / 비단 이불 펼치니 붉은 꽃이 만발했었네 / 꽃 핀 자리에 새 울음 들려오니 / 그윽한 자태 노래하며 애가 끊기네’¹⁴⁾

(1)과 (2)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이다. (1)은 올곧은 성품의 유석이 모함을 받아 좌천될 위기에 처하자 그 딸이 부친을 위하여 당대의 권력자 최항에게 시로서 호소했고 최항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내용이다. (2)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이의 딸이 학문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한 김태현에게

12) “碩季女稍解書，獻詩于沆，乞留父，沆慰諭之，因與穀帛碩”(『고려사』 권112, 열전(列傳)25, 양리(良吏), 유석(庾碩))

13) “十歲而孤勤學夙成，風儀端雅眉目如畫。嘗與儕輩受業先進家，先進奇愛之，屢引入餉之。家有女新寡稍解詩，一日從窗隙以詩投之曰：‘馬上誰家白面生，邇來三月不知名。如今始識金台鉉，細眼長眉暗入情’ 台鉉自此絕不住”(『고려사』 권110, 열전23, 제신(諸臣), 김태현(金台鉉光載))

14) “吾東方，絕無女子學問之事，雖有英資，止治紡績而已，是以婦人之詩罕傳。有土族鄭氏，其弟兄有學者，鄭從傍竊學，頗能詩。一日杜鵑花盛開，良人請賦詩，鄭立就云，‘昨夜春風入洞房，一張雲錦爛紅芳。此花開處聞啼鳥，一詠幽姿一斷腸，雖號能詩者，復豈能過?’(서거경, 『동인시화』(東人詩話))

반하여 연시(戀詩)를 보냈으나 김태현이 이를 외면했다는 일화이다. (1)의 유석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로 그 집안이 어느 정도 위신이 있었으리라 볼 수 있고, (2)의 ‘선배’는 학문에 성실한 후배들을 불러 대접했던 것으로 보아 신분이 낮지 않고 집안 형편이 넉넉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덕무는 젊은 과부가 쓴 (2)의 시를 두고 고려시대의 여성 한시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고 한 바 있는데,¹⁵⁾ 이 여성이 시를 써 김태현에게 전하는 장면은 애정전기의 주인공들이 담장 너머나 창틈으로 시가 적힌 종이를 던져 구애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특히 ‘馬上誰家白面生’, ‘細眼長眉暗入情’ 등의 구절은 『이생규장전』의 최씨의 칠언 가운데 ‘路上誰家白面郎, 靑衿大帶映垂楊’을 떠올리게 한다.¹⁶⁾ (2)의 시는 『이생규장전』의 시에 비하면 시어가 다소 조야하고 내용이 직설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여성이 ‘투시’(投詩)의 행위를 통해 남성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구애하는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록 김태현은 여인의 고백을 외면하였지만, 서사의 세계에서는 이 사랑이 실현된 것이다.

(3)은 서거정이 『동인시화』에서 조선 초기의 여성 문학의 문체를 언급한 대목이다. 재능은 있으나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정씨 부인이 형제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만으로 훌륭한 시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남편의 요청에 따라 시를 지었다는 것인데, 이어 서거정은 ‘시를 잘 짓는다는 사람도 어찌 이보다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여성의 시도 남성의 시 못지않게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시는 ‘춘풍’(春風), ‘동방’(洞房), ‘운금’(雲錦), ‘홍방’(紅芳) 등의 시어로 보건대 두견화가 핀 봄날의 정취를 부부간의 정으로 은근히 표현한 것이다. 부인이 남편을 향한 염정(艷情)을 담은 시를 짓는 이 장면은 애정전기에서 여주인공이 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연정을 표현하는 대목과 유사한 느낌을 준

15) “高麗閨人詩只一首”(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권34, 청비록(淸脾錄)3)

16) 김시습은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속마음을 토로하여 올린 편지』(上柳襄陽陳情書)에서 ‘면조상인 김연(金淵)과 김태현이 대대로 고려의 시중(侍中)을 지냈으니’라고 하여 김태현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시습과 김태현은 각각 본관이 강릉과 광산이므로 이 언급은 사실과 다르며, 김시습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 말을 통해 볼 때 김시습은 김태현과 관련한 『고려사』의 기록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한다. 작품의 번역은 정길수 편역, 『길 위의 노래』, 돌베개, 2006, 154~157면 참조.

다. 남편의 요청에 따라 시를 지었다는 것은 이 부부가 애정전기의 연인 혹은 부부처럼 시를 수창하기도 했으리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한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의탁하는 것이 가능했던 여성은 주로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있는 사족이었으며, 이는 한시가 애정전기에서와 같이 교감의 매개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주인공의 가문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주생전」, 「최척전」 등에서 각각 ‘거실’(巨室), ‘거실우족’(巨室右族), ‘승상노모택’(丞相廬某宅), ‘시중지가’(侍中之家), ‘화족’(華族)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¹⁷⁾ 이들 여성과 그 가족들은 대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저택에서 화려한 기물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다.

(1) 용금문을 나서서 수홍교에 이르니 과연 구름이 연이어 있는 듯한 저택이 보였다. 바로 물가에 있다던 붉은 대문집이었다. 온갖 문양이 아로새겨진 굽은 난간이 푸른 버드나무와 붉은 살구나무 사이로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생활과 피리의 아름다운 가락이 하늘에 메아리쳤다.

(2) 방 안에서 정자로 가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과연 밖에서 보았던 그 정자였다. 붓이며 벼루며 책상이 모두 지극히 깨끗하고 고왔다. 한쪽 벽에는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와 <유황고목도>(幽篁古木圖)가 걸려있었다.¹⁸⁾

(1)은 「주생전」의 주생의 눈에 비친 선화의 집의 모습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의 모습과 그에 어우러진 풍류 소리가 주생을 현혹하고 압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묘사나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작품에서도 여주인공의 가문은 큰 재력을 지닌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서울의 청파리에 거주하다 피란하여 남원으로 내려와 모녀가 친척 집에 부쳐 살게 된 옥영이 예외이긴 하나, 옥영 또한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

17) 작품의 원문은 박희병,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출판, 2006를 활용한다.

18) 박희병·정길수 편역, 『이생규장전』,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134면. 이하 「이생규장전」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한다.

능성이 많다. 풍족한 경제적 여건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조건이 된다. 여기에 더해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주인공은 외동딸로, 『하생기우전』의 주인공은 위로 다섯 아들이 죽은 사실상의 외동딸로, 『주생전』의 선화는 너댓 살 어린 국영이라는 남동생을 하나 둔 외딸로, 『최척전』의 옥영은 위로 ‘득영’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죽은 외동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이들 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2)는 『이생규장전』에서 최씨네 정자를 묘사한 대목이다. 애정전기의 주된 동선은 남성이 여성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숨겨져 있던 내부의 공간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남성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성애를 암시하는 베개와 이부자리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며 이와 동시에 붓, 벼루, 책상, 그림, 붓글씨, 종이와 같이 여성의 학문이나 문예 취향을 보여주는 고급의 기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생기우전』에는 여성의 거처에 금 책상, 옥 벼루, 붓, 화전(花箋)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생전』에도 채운전(彩雲箋), 책상, 붓 등이 등장한다. 『최치원』에서 팔랑과 구랑이 어렸을 때부터 붓과 벼루를 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고상한 문예적 취향을 반영하는 기물들은 여주인공이 자유롭게 읽고 쓰며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암시하며, 독자가 여성의 문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

끝으로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이 읽은 책에 대해 살펴보자. 문해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독서이다. 여성이 읽은 책은 문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대화나 글쓰기에서의 인용을 통해 드러난다.¹⁹⁾ 『주생전』에서 선화의 집에 할아버지 노승상의 삼만 권 장서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이 학문의 내력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읽은 책의 목록은 일람할 수 있도록 아래에 표로 대신한다. 목록이 소략하지만 『시경』이 자주 등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명한 시사(詩詞)가 활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19) 물론 책명(冊名)을 언급하거나 짧은 구절을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의 ‘전권’을 ‘읽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고가 조선시대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문해력과 문예에 대한 논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혼적’에 불과할지라도 되도록 많은 책과 글을 독서 목록에 포함해 일별하는 것도 일정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한다.

		경서류	소설류	시사류 기타
만복사저포기	여인	시경, 서경		
이생규장전	최씨	시경, 주역	전등신화	
하생기우전	여인			위응물의 시
주생전	선화			소동파의 사
최척전	옥영	시경		

2. 중하층 여성의 경우

사족이 아닌 애정전기 여주인공의 문예적 역량을 개연성 있게 그리기 위한 방법은 이들을 시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처지에 두는 것이다. 『주생전』, 『운영전』, 『영영전』, 『심생전』, 『절화기담』, 『포의교집』에는 중하층 신분의 여성이 등장한다.

궁녀와 기녀는 전근대 여성의 특수 직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하층 신분이었지만 왕실의 인물 및 사대부 남성들과 근거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향유하는 고급 문화를 공유하였다. 독서와 문예도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궁녀들은 주로 한글에 익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²⁰⁾ 조선 전기의 궁녀 조두대(曹豆大)와 같이 지적인 소양을 고루 갖추고 한문에 능통한 이들도 있었다.²¹⁾ 따라서 『운영전』과 『포의교집』에서 여주인공을 궁녀 출신의 하층민이지만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물로 내세운 것은 사실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창작 시기나 인물의 형상화 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주인공인 운영과 초옥이 각각 안평대군과 남령위의 궁녀였다는 점에서 ‘궁녀’의 문예가 가지는 배경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20) 궁녀들은 궁중의 비빈(妃嬪)들과 함께 편지, 소설, 교지(教旨) 등의 한글 문건을 읽거나 쓰는 데 숙련된 집단이었다. 연산군 때에는 한글을 아는 여성만 궁녀로 뽑기도 할 정도로 한글 문해력은 궁녀의 기본자질이였다.

21) 조두대는 한글은 물론 이두, 한문에 능통하여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와 『내훈언해』(內訓諺解)의 간행에 참여하고, 한문을 모르는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수렴청정을 도왔던 인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희숙, 『조선 초 궁녀 조두대의 생애와 여알(女謠)』, 『한국사학보』 87, 고려사학회, 2022, 145~175면 참조.

- (1) 먼저 『소학언해』(小學諺解)를 가르쳐 모두 외게 한 뒤에 『중용』, 『대학』, 『논어』, 『맹자』와 『시경』, 『서경』, 『통감절요』(通鑑節要)를 가르치고, 또 이백(李伯)과 두보(杜甫)의 당시 수백 수를 가르치니, 5년 안에 과연 모든 재주를 이루었습니다. 대군은 집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을 항상 눈 앞에 두고 시를 짓게 한 뒤 지도했고 작품의 잘잘못을 품평하여 상벌을 내림으로써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지요. 궁녀 열 사람의 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우뚝하고 큰 기상은 대군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칭아한 율음과 글귀 만드는 솜씨는 성당(盛唐) 시인의 울타리를 엇볼 만 했습니다. (...) 부모님은 처음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칠언당음』(七言唐音)을 가르쳐 주셨지요.²²⁾
- (2) 저는 어린 시절에 남령위 맥 별가(別駕)를 모셨습니다. 별가는 여중시인(女中詩人)이었는데, 제가 재주 있다 여겨 부지런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통감』(通鑑)과 『사략』(史略)은 물론 『시경』, 『효경』, 『고문진보』에 이르기까지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고시(古詩)도 종종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난설헌집』은 지금도 입에 익답니다.²³⁾

(1)은 『운영전』에서 운영이 유영에게 들려주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 가운데 앞부분으로, 안평대군이 열 사람의 궁녀를 선택하여 문장을 수련시키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운영과 아홉 궁녀들은 안평대군이 “만당의 시와 비교해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겠으나, 성삼문 이하의 사람들 중에는 너희보다 앞섰다고 할 자가 없겠구나”라고 극찬할 만큼 시작 능력이 출중하다. (2)는 『포의교집』의 초옥이 글을 알게 된 경위를 묻는 이생에게 자신의 문장의 내력을 말하는 부분으로, 속량(贖良)되어 혼인하기 전 남령위의 별가에게 글을 배운 사정을 밝힌 것이다. 초옥 역시 이생과 주변의 남성들이 찬탄할 만한 재주를 가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운영과 초옥이 하층 여성의 신분으로 뛰어난 시인이 된 것은 궁녀의 신분이었던 덕에 어린 시절부터 문자와 문학을 익힐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회는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인 안평대군과 ‘여중시인’으로 지칭된 어

22) 박희병·정길수 편역, 『운영전』,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37면 및 77면. 이하 『운영전』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한다.

23) 정공보, 『포의교집, 초옥 이야기』, 박희병·정길수 편역, 돌베개, 2019, 37면. 이하 『포의교집』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한다.

편 여성으로부터 온 좋게 얻은 것으로서, 궁녀라 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은 궁녀이면서 ‘패트론’으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아 학문과 시를 연마할 수 있었던 두 인물을 사실적으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영전』에는 5년에 걸쳐 경전과 고문, 시를 공부하고 ‘합평회’를 통해 고도의 창작 수련을 쌓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 열 사람의 궁녀가 어떻게 그토록 높은 수준의 한시를 쓸 수 있었던가 하는 점에 대한 독자의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

기녀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조건과 사대부 남성과의 교류를 통해 한문과 한시를 익힐 수 있는 신분이었다. 이는 조선 전기의 한시 작가인 황진이와 이매창이 기녀이며, 한시를 남기고 있는 고려시대의 여성인 우들과 동인홍 또한 모두 기녀인 데서도 알 수 있다.²⁴⁾ 『주생전』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과의 결연 여부로만 본다면 선화이겠지만, 배도 역시 삼각관계의 한 축이라고 볼 때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배도는 문예에 있어서도 선화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지니고 있다. 배도는 주생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처음부터 하층민인 기녀의 신분이었던 것은 아니다. 배도의 일족은 호족(豪族)으로 그 조부는 상선(商船)을 관리하던 관청의 우두머리였다. 기적(妓籍)에 이름을 올리기 전의 배도는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배도의 문예적 능력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주생은 여성의 외모뿐 아니라 문예에 매혹되는 인물로서, 배도와 선화 두 사람을 글솜씨로 저울질하기도 한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미모에 반했음은 물론 빼어난 벽상(壁上)의 시에 더욱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나 선화를 만나고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들은 이후로는 선화에게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 이는 배도보다 선화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처럼²⁵⁾ 배도의 글보다 선화의 글이 더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선화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화와 배도는 연적(戀敵)이면서

24) “婦人之職，中饋織紉而已，文墨之才，非其所宜，吾東之論，從古如此，雖有才稟之出人者，亦忌諱而不勉，可歎也。三國時則無聞焉，高麗五百年，只有龍城娼于叱，彭原娼動人紅，解賦詩。”(이숙권, 『패관잡기』(裨官雜記) 권4)

25) 주생은 선화와 배도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부인과 소녀 사이에 앉은 배도의 모습은 봉황의 곁에 선 올빼미만도, 진주 곁에 놓인 조약돌만도 못해 보였다.”

문예에 있어서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선화가 배도가 쓴 시를 먹물로 지워버리는 대목이나, 배도가 주생이 읊은 시에 등장하는 ‘선아’가 선화임을 깨달은 후 상심하는 대목 등은 두 여성이 ‘문예의 장’ 안에서 경쟁하고, 세 사람의 관계가 그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심생전』과 『절화기담』은 여성의 문해력과 문예라는 측면에서 다른 단계로 진입한 애정전기이다. 『심생전』의 심생은 용모가 준수한 서울 선비로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작품 속에서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첫눈에 반한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도 이십여 일 동안 소녀의 집에 찾아가 새벽까지 기다리는 것일 뿐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소녀 또한 밤마다 문밖에 심생이 찾아와 밤을 새는 것을 알면서도 시나 편지를 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의 애정전기 『심생전』에 이르면 남녀 주인공이 시사나 편지를 통해 감정적 교류를 하는 현상이 소멸된다.

『심생전』의 여주인공은 한글은 능숙하게 사용하나 한문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녀는 호조(戶曹)에서 회계일을 보다 퇴직한 중인의 딸인데, 대개 초저녁에 여종과 함께 방에서 한글 소설을 소리 내어 읽었다. 이후에는 집안의 의심을 사 북한산성으로 공부를 하러 떠난 심생에게 유서에 해당하는 장문의 한글 편지[諺札]를 보낸다. 이로 볼 때 소녀는 한글을 읽고 쓰는 일에 비교적 익숙했으며, 같은 방에 기거하며 함께 생활한 여종들 역시 한글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생은 산사에서 소녀의 편지를 받고 울음을 터트리는데 이로 볼 때 심생 또한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그러나 심생은 한 번도 소녀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세상을 떠난 소녀를 애도하는 글도 짓지 않는다. 이로서 『심생전』은 시를 수창하는 장면도,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연인을 그리는 글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애정전기 작품이 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전기 소설의 문예를 대표하는 시와 사의 서사적 역할은 점점 축소되는데,²⁶⁾ 『심생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어 시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소녀의 편지도 독백에 머무는 결과에 이르렀다.

26) 정환국, 앞의 글, 213~217면. 하성란, 앞의 글, 202면에서는 17세기 이후 애정전기에서 시를 받고 편지로 화답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중인이라는 소녀의 신분과 한글 편지가 널리 보급되어 간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도 일정하게 관련이 있다. 한글은 16세기 후반에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글 편지가 본격적으로 성행하였다.²⁷⁾ 여성에게 허용된 문해력은 한글을 익혀 편지를 쓰고 국문소설을 읽는 정도가 일반적이었으며, 『심생전』의 여주인공 또한 중인의 딸로서 자신에게 허용된 언어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 사대부 남성들은 한글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고급의 문예 활동은 여전히 한문을 통해 수행하였기에, 심생 또한 경계를 넘어 한글로 소녀와 소통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심생전』에는 문자와 문예를 통한 남녀 주인공의 접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심생이 글공부를 그만두고 무과 벼슬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이 작품에서 문자와 문예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절화기담』의 순매는 여중으로, 애정전기의 성격을 가진 작품 가운데 가장 신분이 낮은 여주인공일 것이다. 『포의교집』의 초옥 역시 하층민이지만 남령위의 궁인으로 있었던 데다가 시부가 속량시켜 며느리로 삼은 까닭에 순매와는 처지가 다르다. 『절화기담』에서는 순매가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순매는 한문은 물론 한글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문해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반면 남주인공 이생은 순매를 그리워하며 많은 시를 쓴다. 그러나 순매에게 그것을 보내거나 순매에게 그 내용을 들려준다는가 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절화기담』에서의 문예는 남주인공의 감정을 토로하는 독백 내지 독자를 향한 방백에 그칠 뿐,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을 높이는 매개물이 되지 못한다. 이생은 시문을 잘하는 재주 있는 선비로 설정되어 있는바 두 사람의 문예적 취향과 수준의 차이는 줄이려는 노력이 불필요할 정도로 현격하다.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하여 ‘문예적 교류’가 점차 사라져 가는 현상은 『포의교집』에 이르면 다소 완화되면서 남녀 주인공 양측에서 비틀린 형태로 나타난다. 애정전기의 전통을 계승하여 통속적이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문예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포의교집』은 하층 신분이면서도 한문 교양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닌 여주인공 초옥을 등장시키고 있다. 초옥

27) 안병희, 『國語史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92, 253면.

은 낮은 신분이지만 한문으로 읽고 쓰는 데 능숙한 인물이고, 남주인공 이생은 버젓한 양반이나 문예적 역량이 빈약한 인물이다. 대부분의 애정전기에서 뛰어난 글솜씨와 재주 그리고 준수한 외모는 남주인공의 ‘기본값’이다. 재주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주인공의 역량이 여주인공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생전』과 『절화기담』에서도 남주인공의 우월한 속성은 유지되면서 여주인공이 한문 교양을 지니지 못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포의교집』의 이생은 신분을 제외하면 학문적 지식과 문예, 교양, 도덕성 등이 신분이 낮은 여주인공에 비해 부족하다. 벽성(碧城)의 기생 화옥이 ‘시골의 부유(腐儒)’라고 표현한 이생은, 초옥은 기억하고 있는 『사기열전』 『소진전』(蘇秦傳)의 내용을 잊었다고 하기도 하고, 초옥의 시에 화답할 재주가 없음을 자인하며 선물을 대신 보내기도 하고, 스스로 시를 짓지 못해 이백의 시를 베껴 초옥에게 보내기도 한다. 초옥 또한 신분과 처지에 비해서는 대단한 재주를 지녔다고 하나 필체가 시원찮고, 써 보낸 시가 대개는 표절인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소설의 독자에게는 뛰어난 시인으로 보이기엔 부족하다.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은 표절을 의심할 뿐이지만 작품 밖의 독자는 초옥의 시를 허난설헌과 여타 문인의 표절작인 것으로 명백히 인지하기 때문이다.²⁸⁾

『포의교집』 전편을 통해 초옥은 글 잘하는 선비와 만나 소통하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한문으로 시를 써낸다. 그런데 초옥의 남편은 한글만 깨친 자이고,²⁹⁾ 내연 관계의 이생은 학식과 문예가 신통치 않다. 게다가 실은 초옥 또한 기존의 애정전기 여주인공들만큼의 문예적 역량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남녀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시와 사, 혹은 편지를 통해 절묘하게 표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답하며 사랑을 쌓아나가는 것이 기존 애정전기의 문법이라면 『포의교집』의 인물들은 부족한 문해력과 문예로 인해 이를 불완전하게 흉내내고 있다.

중하층 신분의 여주인공들이 읽은 책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

28) 이 점은 경길수, 앞의 글, 165~196면에서 작품의 회작적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었다.

29) 초옥의 남편이 초옥의 시를 다른 마을 선비에게 가져가 언문으로 풀이하는 대목은 남편이 한글만 겨우 익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시경』은 전기소설의 여주인공의 독서 목록에서 거의 빠지지 않으며, 시집류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족 출신 여성 시인으로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의 설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허난설헌의 이름이 『포의교집』에서 보이는 점, 『운영전』의 『소학언해』와 『심생전』의 한글 소설만이 한글로 된 독서물이라는 점 등이 흥미롭다.

		경서류	소설류	시서류 기타
운영전	운영	소학언해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시경 서경	태평광기	철언당음 삼강행실도 통감절요 이백과 두보의 시 당시
주생전	배도	시경	곽소옥전	
심생전	여인		한글소설	
절화기담	순매			
포의교집	초옥	시경		사기열전 통감 사략 효경 고문진보 고시 난설헌집

III. 여성 인물의 문예와 그 변모 양상

Ⅰ 지금까지 살펴본바 애정전기의 주요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문해력과 문해력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작품의 설정에서 여주인공이 문예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안배하고 있다. 둘째, 후대로 갈수록 여성의 언어생활의 현실이 구체적이고 통속화된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³⁰⁾

여주인공이 사족으로 등장하는 애정전기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모두 완벽한 문예적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두 사람의 문예적 취향과 수준이 거의

30) 이는 17세기 이후 전기소설의 전반적인 통속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일치한다. 특히 여성의 문예 수준이 일급의 남성 문인에 비해서도 뒤쳐지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주생전」, 「운영전」 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여성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학문적·문예적 수련을 해왔는가에 관한 정보, 곧 신분과 가족의 배경, 경제적 조건, 독서의 이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학문과 문예의 수준을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높은 신분의 여성들은 풍족하고 고상한 생활 조건을 바탕으로 탁월한 시문 능력을 가진 것으로, 기녀나 궁녀는 하층민이지만 그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시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하층민이 여주인공으로 설정된 작품에서는 여성의 문해력과 문예가 남성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여성의 신분이나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여성의 문해력과 문예 수준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문예물이 남녀 주인공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변화의 방향이다. 「최척전」, 「주생전」에서 나타난 변화의 조짐은 「심생전」, 「절화기담」, 「포의교집」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뒤의 세 작품에 이르면 남녀 주인공은 사용하는 문자 혹은 소통의 방식에 있어 더이상 문예적 취향의 공유와 소통을 이루지 못한다. 시사와 편지의 기능은 후대의 작품으로 갈수록 축소되며 소통은 상징적 사물이나 구두 언어가 대체하게 된다.³¹⁾

요컨대 애정전기 속의 여성의 문예는 당대 여성의 문자 생활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전개된 듯하다. 신분과 성별, 문해력의 관계가 일정치 않고 복잡다단해지는 조선 후기 사회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포의교집」에는 한글만 깨친 양인 남성, 한문과 한글에 능통하지만 하층민의 번역일을 맡아 하는 양반 남성, 학문과 문장에 시원찮은 양반 남성, 한문의 교양을 고수하려는 하층민 여성, 궁가(宮家)의 여중시인이 골고루 등장하는데 이는 신분, 성별, 문자의 세 요인이 교착된 당대의 언어 생활의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② 여성의 문해력과 문예에 대한 당대의 통념은 남성이 여주인공의 지적

31) 하성란, 앞의 글, 207면 및 김정미, 「상사동기에 나타난 사랑의 재현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95, 한국문학언어학회, 2023, 62면 참조.

인 면모나 문예적 능력에 대해 품는 의심을 통해 읽어볼 수 있다.

- (1) “너희 아씨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혹 나면서 부터 그러하나?” “아씨에게는 득영(得英)이라는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셨는데 글을 잘했습니다. 이분이 나이 열아홉에 혼인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셨지요. 아씨는 오라버니가 글공부하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웠으니, 대략 이름이나 쓸 정도여요.”³²⁾
- (2) ‘진짜 양파가 지은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의 시가 아닐까? 옛 시를 두루 떠올려 봐도 이런 풍격의 시는 처음 본다 (…)” “그건 그렇고, 낭자는 언제 이런 문장 실력을 이루었소?”

『최척전』에는 옥영이 어머니의 외사촌인 정생원에게 글을 배우러 온 최척을 엿보고는 『시경』 『표유매』(標有梅)의 마지막 장을 쓴 쪽지를 보내는 대목이 있다. 이는 최척에게 구애 혹은 청혼의 뜻을 은근히 담은 것으로, 옥영이 『시경』의 해당 시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쪽지를 받은 후 최척은 옥영의 시비 춘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최척과 춘생은 옥영이 글을 어떻게 익혔는지 (1)과 같이 문답한다.

이 대화는 옥영에 대한 최척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양반 여성의 학문 및 문예와 관련한 당시의 상황 혹은 통념을 반영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척이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한 옥영이 경서를 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은 것은, 양반가의 여성들도 한문을 익히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옥영은 『시경』의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를 옮겨 쓴 것만으로도 최척의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높은 수준의 한시를 창작하는 것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타 작품의 남주인공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시비 춘생은 옥영이 오라비 득영의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이는 임윤지당이나 농암 김창협 딸 등 사족 여성들이 가내에서 한문을 습득하게 된 계기와 비슷하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 남자 형제들의 책 읽은 소리를 흘러들다가 글공부를 시작하게 되

32) 박희병·정길수 편역, 『최척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18면. 이하 『최척전』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한다.

었다는 내용이 자주 보인다.

옥영의 실력이 대략 이름이나 쓸 정도라는 춘생의 대답은 독서와 학문이 권장되지 않은 당대 여성의 처지를 감안한 시비의 겹사로 보인다. 나중에 두 사람이 혼인한 후 어느 봄날 밤에 최척이 통소를 불자 옥영이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이 지경에 이르니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라고 말하면서 시 한 편을 지어 읊는 장면에도 여성의 문예를 금기시하는 당시의 풍조가 은근히 드러나 있다. 이미 혼인을 한 사이인데도 최척이 “옥영의 시 짓는 재주가 이처럼 뛰어난 줄 모르고 있다가 시 읊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 대목은 여성이 자신의 학문과 문예를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편, 여주인공의 문예가 남주인공에게 매력으로 작용하여 결연의 매개가 되는 애정전기의 고유한 문법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는 『포의교집』에서 초옥이 보낸 시를 보고 이생이 놀라는 대목이다. 이생은 초옥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시의 높은 수준을 의심하였을 것이며,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도 그 문장의 내력을 캐묻는다. 이러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정작 이생은 그의 문장에 잔뜩 기대를 품고 있는 초옥에게 화답시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는 실력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의심과 착각은 독자로 하여금 초옥에 대한 이생의 평가가 정당한지, 두 사람이 자신 혹은 상대방이 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등장인물이 동일한 문예 취향을 지녀 강한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애정전기의 고전적인 문법³³⁾이 점차 느슨해지면서, 남녀 주인공의 문예는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의심스럽거나, 부재하는 것으로 변화해 간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애정전기의 주요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의 문예의 양상을 여주인공의 신분이라는 큰 구분 아래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애정전기에서

33) 박희병, 앞의 책, 54면.

남성의 문예가 상수라면 여성의 문해력과 문예는 변수로서 주인공의 애정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소설, 특히 애정전기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남성 문인의 이상과 욕망을 표현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성의 문예라는 요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연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주인공이 문해력과 문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 인물과 그 주변 환경을 정교하게 설정한 것이 그것이다. 애정전기의 여주인공은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거나 공녀 혹은 기녀로서 조선시대에 문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소수의 여성 집단에 속한다.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집, 서적, 기물 및 여성 인물의 이력과 처지도 이들이 문예적 역량을 갖춘 인물임을 강조하고 개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전기소설에서 문예 작품의 서사적 역할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약화되는 바 「심생전」, 「절화기담」, 「포의교집」 등에 이르면 여성 인물의 신분이 중하층에 가까워지고 이들의 문해력과 문예는 장르의 전통적인 문법을 벗어나 계층적 다양성에 따른 언어 현실을 보다 적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상에서 애정전기의 여성 형상과 여성의 문예 역량에 대한 묘사가 당대에 실존했던 여성의 삶 및 그들의 언어생활과 생각보다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점 전기소설이 현실과 맺는 관련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려사』(高麗史)
서거정, 『동인시화』(東人詩話)
어숙권, 『괘관잡기』(稗官雜記)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이승인, 『도은집』(陶隱集)

2. 단행본

- 박희병,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_____,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_____, 『절화기담, 순매 이야기』, 돌베개, 2019.
_____, 『포의교집, 초옥 이야기』, 돌베개, 2019.
안병희, 『國語史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92.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이동근 편역, 『수이전』, 지식올만드는지식, 2011.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 고전여성문학의 세계: 한시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정길수 편역, 『길 위의 노래』, 돌베개, 2006.
조병영, 『읽는 인간, 리더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3. 논문

-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35~65면.
_____, 『상사동기에 나타난 사랑의 재현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95, 한국문학언어학회, 2023, 57~81면.
김영미, 『고려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수행』, 『사학연구』 86호, 한국사학회, 2007, 1~37면.
박종우, 『전기소설 삽입시의 기능과 성격』,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111~143면.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223면.

윤재민,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12~37면.

임미정, 『허난설현 시 자료의 재검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41~98면.

정길수, 『『포의교집』의 희작(戲作) 성향 -여주인공 초옥을 보는 작자의 시선』, 『고소설연구』 45, 2018, 165~196면.

정환국,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감』,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192~219면.

하성란, 『『포의교집』의 삽입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191~219면.

한희숙, 『조선 초 궁녀 조두대의 생애와 여알(女謁)』, 『한국사학보』 87, 고려사학회, 2022, 145~175면.

Women's Literacy and Literature in Korean 'Cheongi'(傳奇) Novel

Choi Ji Nyeo

The male and female main characters of the Korean Cheongi novel are depicted as people with excellent ability of classical literature and composing poems, as they reveal their emotions and identity through literature and further form a mental bond with their lover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women in Joseon Dynasty who lacked opportunities to be educated and trained for writing compared to men, these characters can be said to be somewhat unrealistic. In Cheongi novel, female character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are elaborately set so that women can have literacy and literary capabilities to secure novel probability. The status of heroin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noble class and middle and lower class. They were daughters of wealthy prestigious families, court ladies or Kisaeng(妓生) and all belonged to a small group of women who could access to literary arts in Joseon Dynasty. The experience and situation of female characters described in the novel also help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ir literacy and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narrative role of literary works in Cheongi novel gradually weakens and the status of female characters are confined to middle and lower classes. Literacy and literature of female characters develop in a way that reflects the language environment based on classes, beyond the traditional custom of the genre.

Keywords: Cheongi Novel, Romantic Cheongi Novel, Literacy, Literary Arts

접수일자: 2023. 9. 30.
심사기간: 2023.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3. 11. 10.